

PRESS RELEASE

EMO 하노버 2013 – 다양한 부대행사로 제조 기술 트렌드 제시

2012 년 12 월 12 일, 서울 – 금속가공 분야 세계 최대 박람회인 EMO 하노버 2013 이 내년 9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금속과 관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기업 모임으로 유명한 이번 행사는 21 세기 업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주최측인 독일공작기계협회(VDW)의 클라우스-페터 쿤뮌히 이사는 12 월 12 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EMO 하노버는 금속 가공 분야 제조 기업은 물론 수요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자리이자 전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행사로서 자리매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속 가공 분야의 중요 이슈를 해소하는 무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내년도 박람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려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과 업계 트렌드를 전방위로 다룰 예정이다.

EMO 컨퍼런스 “더 스마트한 제조(Smarter manufacturing)”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는 내년도 행사의 메인 주제인 “생산현장의 인텔리전스 (Intelligence in Production)”에 맞춰 “더 스마트한 제조(Smarter manufacturing)”를 주제로 한 2013 년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사람, 기술,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자리로,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능형 제조와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산업 4.0, 정밀가공의 한계점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특별전 ‘Blue Competence’에서 에너지 효율 제조 부각

오늘날 정책, 사업, 연구 분야의 진전을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이다. 정계, 업계, 학계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정도 차원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제조 분야가 상당한 부문을 떠맡아야 한다. VDMA 산하 공작기계 및 제조시스템 분과협회가 “Blue Competence – Engineering a better world”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MO 하노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전인 Blue Competence 를 내년 행사에 마련한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제조” 컨퍼런스에서 다루지는 논의 내용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별전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를 위한 제품과 솔루션이 집중 전시된다.

EMO 컨퍼런스 “항공 산업의 새로운 제조 기술”

항공산업의 새로운 제조 기술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가 EMO 하노버 2013 에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는 라이프니츠대학 하노버 제조기술 공작기계 연구소와 독일 바렐 소재 기계 혁신 네트워크(Machining Innovations Network)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내년도에 벌써 13 회째를 맞는 국제적인 컨퍼런스로 업계는 물론 각국의 씽크 탱크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개발 트렌드와 미래의 도전 과제 등을 논의한다. EMO 하노버 2011 년 행사에서는 전세계 유명 석학들이 참여해 컨퍼런스를 적극 활용했다.

“혁신의 어제, 오늘, 내일: 품질 모듈을 위한 비용 효율적 공정 솔루션” 특별전

제조 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효율적인 공정 솔루션에 의존한다. 기계 혁신 네트워크의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특별전은 오늘날 고품질 부품소재를 위한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EMO 컨퍼런스 “항공산업의 새로운 제조 기술”의 지평을 넓이는 역할을 한다. 혁신 프로세스의 연대기적 전시도 주목할만한 하다. 현대 제조 기술의 바탕이 된 과거의 혁신 사례를 보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대다. 방문객들은 당장 적용 가능한 현재의 솔루션은 물론 미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획기적인 개념들도 동시에 접하게 된다.

EMO 서 인도 시장 집중 부각

인도는 공작기계 분야에서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다. 2011 년까지 5 년 동안 인도의 공작기계 시장은 30% 가까이 증가한 26 억 달러 규모에 달했다. 인도는 현재 세계 공작기계 시장 7 위에 랭크 돼 있다. 또한 수입 시장으로도 위상이 높은 만큼 글로벌 공작기계 업체에게는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는 셈이다. 지난해 자동차와 관련 부품 소재, 전기 전자, 기계 분야 등의 사용자 업계에서 구매한 규모는 20 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에 수출을 하거나 현지 법인을 세우거나 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VDW 가 EMO 하노버 2013 에서 인도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의 경제, 정치, 법률, 세무 환경은 물론 판매, 서비스, 소비자 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 (Enterprise Europe Network)

지난해에 이어 내년 행사에서는 슈트트가르트에 소재한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가 다시 한번 EMO 하노버 2013 에서 기업인 상담회를 주관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담회는 박람회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해 분야가 맞는 기업인들을 모아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 참가자들은 상호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용하고 효율적인

미팅이 된다. 이는 2011 년도 행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엔터프라이즈 유럽 네트워크가 주관한 2011 년도 행사에서는 25 개국 156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해 500 회 이상의 상담회가 이뤄졌다. 현장 미팅이 협업 노력이나 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차세대 리더를 위한 프로그램 “기계공학도 – 강력한 커리어”

공작기계 산업이 혁신의 속도를 유지 또는 강화하고 국제 고객사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유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독일 공작기계 업계는 인구 증가와 함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자 몇 년 전부터 선제적인 접근법을 도입했다.

2009 년 VDW 는 자체 청소년 재단을 만들어 이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행동에 돌입했다. 재단은 “기계 공학도 – 강력한 커리어(Mechanical engineer – A powerful career)”를 모토로 업계, 직업 학교, 대학교와 함께 일반 및 실업계 학생 3000 여명을 EMO 하노버 2013 에 초대할 계획이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 업계가 제시한 한 가지 사례다. 목표는 국제성과 혁신성을 갖춘 EMO 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제조 기술을 체험하고 향후 기계 공학 분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가 학생들이 기계를 통해 실제 세계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VDW 청소년 재단은 또한 특정 학교 단체에 가이드 투어도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견습생들의 어깨 너머로 기계를 관찰하고, 질문을 하거나 직접 운전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VDW 청소년 재단과 전시 기업의 목표는 유능하고 관심이 많은 인재들이 관련 업계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제조 기술을 위한 트렌드세터

쿤윈히 이사는 “EMO 하노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흥미롭고 포괄적인 부대행사들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길잡이 아이디어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O 는 제조 기술에서 미래의 트렌드를 정의한다. 이는 공작기계 기술은 물론 전략과 시장 개발에도 마찬가지다. EMO 하노버에서 제시될 토픽과 트렌드는 향후 수주, 수개월 동안 화두가 된다.

※ 보도자료 문의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아이피알포럼(주) 전시 1 팀 유재은(Tel: 02-551-7063, E-mail: avery@ipr.co.kr)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www.emo-hannover.de/presseservice



http://twitter.com/EMO_HANNOVER



<http://facebook.com/EMOHannover>



<http://www.youtube.com/metaltradefair>



<http://linkedin.com/company/emo-hannover>



<http://www.cnc-arena.com/de/newsroom/emohannover>